



오르락 내리락 환율 파도를 이기는 방법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뉴욕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환율도 매일 급변하는 추세다.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환율이 등락할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올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도 선물환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은행의 환거래 보증금이 만만치 않다. 1년짜리가 거래액의 15%인데다 2년짜리는 20%에 이른다.

거래수수료도 1~2년짜리는 1달러에 5원 이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외환거래에 의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이 같은 외환거래 위험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참여하면 됩니다. 중진공은 이 사업을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진공에 환어음관리지원신청서, 부채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8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심사는 중진공과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중진공이 사업승인을 하면 우리은행과 약정을 맺고 시행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가입 기업은 3,000달러 이상이면 외환거래가 가능합니다. 선물환 거래 보증금도 1년짜리가 일반은행에서 15%인 데 비해 1.5%밖에 받지 않습니다. 거래수수료도 6개월에서 1년짜리의 경우 달러당 5원 받는 것을 1.5원만 받습니다.

환거래량이 많은 업체는 수출입은행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최근들어 효율적인 외환관리로 환차익을 남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에 있는 미광기계는 섬유기계를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6,000만 원의 환차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산업용 밸브생산업체인 경남 창원외 피케이 밸브는 선물환거래와 환변동보험을 활용해 5억 원의 환차익을 얻었으며 원주에 있는 미디어나도 환위험을 관리해 5,300만 원의 환차익을 본 바 있습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곧 중진공의 환위험관리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외환거래 위험에 대비한 '환위험관리' 방법은?

A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크게 4개 부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외환거래수수료 인하
2. 선물환 보증금 할인
3. 외환위험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
4. 환위험관리 교육 실시

중소기업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 신청 후

참고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자금용자' 란